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3호 [주체 제23115호] 주체99(2010)년 6월 12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품을

프랑스에서 출판, 방글라데시신문이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프랑스판제전선소식 데 모프르드출판사에서 1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의 전문을 방글라데시신문 《블리즈》 4일부가 게재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6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흥철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새로 건설된 가스화공정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한 총돌격전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는 지금 조선의 전 국토에서는 매일 매시각 경이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펼쳐져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있고 하시면서 이러한 전변은 적들의 그 어떤 반공공작책도 영웅적조선인민들의 거세한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전환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이야말로 전

당적인 총공격전, 전국각적인 총돌격전,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을 벌려 불가늠을 모르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다시 한번 높이 펼쳐야 할 때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남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건설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아름다운 대건설공사를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한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대일통신》, 《베이징일보》, 《신양일보》, 홍콩 《문화보》와 불황위성 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마르 통신도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2일 수단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출전전대공영을 관람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군부대에 출전전대공영을 관람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육관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불사신의 용사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이 무적의 대군이 조국방위를 굳건히 사수하고있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핀란드 코핀포름통신사 인터넷잡지, 체코주체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와 백두산체코조선친선협회 인터넷포럼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묘한 문화가 사업하는 기계공장과 능력확장된 대동공과수충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본사기자

《김정일선집》 제4권 (증보판)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집대성한 《김정일선집》 제4권 (증보판)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김정일선집》 제4권 (증보판)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 60(1971)년 3월부터 주체 62(1973)년 2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56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수천년동안 인류의 예지가 도달한 사상리론의 총화나 집대성보다 더 높은 혁명사상의 최고봉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합한 지도사상입니다.》

로작들이 발표된 기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0돐을 민족희대의 명절로 뜻깊

게 맞이하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6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던 시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수령님의 존함따라 결부하여 부활수 있는 목장적인 사상이다》,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희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에서 수령님의 사상리론의 풍부성과 심오성, 독창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고전적로작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는 데에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천명되어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부문의 당사업을 더욱 강화해 대하여》, 《당일군은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갖춘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명도적역할을 높이며 당대열을 튼튼히 꾸려나가는 데에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었다.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군사

지휘관을 더 많이 키워내자》 등의 로작들에는 우리 당의 군사리론을 관철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과 수행방도가 명시되어있다.

또한 인민군대에서 당의 명도적계를 세우며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 《혁명전열을 결렬히 옹호고수하자》, 《우리는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에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열을 결렬히 옹호고수하고 빛나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해 밝혀주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며 계속 전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고전적로작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 대하여》에는 6개년계획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 그 수행방도,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데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가극(교바다)》은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형을 일으킬데

대하여》, 《우리 식의 혁명적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영화예술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문학예술혁명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나라의 예술인재들을 키우는 데에 나서는 과학적인 사상리론과 해결방도들을 명시하시었다.

고전적로작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렬히 투쟁하자》에는 조국통일3대원칙이 우리 민족의 념원과 의지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민족공동의 현양이라는데 대하여서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선집에는 이밖에도 청년들을 계속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데에 나서는 과업과 중앙방공위원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와 방도, 계속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틀어쥐고나가는 할 원칙적요구를 밝힌 고전적로작들도 편집되어있다.

《김정일선집》 제4권 (증보판)은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한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보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강성대국건설대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규모과일생산기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자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열기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열기모임이 11일 대동강과수충합농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서 임원들, 618건설돌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동강과수충합농장 농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건설자들에게 보내신 감사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김기남동지의 보고에 이어 현장지휘부 책임자 리창선, 인민보안부 사단장 박재성, 돌격대원 리성수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 6일 농력확장된 대동강과수충합농장을 찾으시고 건설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

무정신을 지니고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과수농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대단한 감동과 감사를 표시하시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농장이야말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희한한 풍경이며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사를 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일찍이 세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과일생산기지를 건설할선 현대의 과수장을 펼치기 위하여는 장군님께서 대동강기슭에 대규모의 과수충합농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혁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능력확장공사에 펼쳐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내달리며 대동강과수충합농장에 대하여 말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매년에 있는 강우위속에서도 토지정리, 살림집과 도로건설, 제방공사와 과일나무영양과파기 등을 다같이 밀고나감으로써 말처럼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짧은 기간에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규모과수농장이 일떠서 원흥명예 《선군11경》이 펼쳐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동강과수충합농장이 건설됨으로써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공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게 하는

사회주의무로도원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동강과수충합농장을 더욱 훌륭히 번모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당일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 배지공작, 살림집건설, 원흥명예제방공사 등 말은 과제를 제기일에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공사속도를 높이면서 도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할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며 건설물들을 선군시대를 대표할수 있도록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

직하고 내부에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군들이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혁신적정지사업과 이신작업을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불붙이시키고 전투장마다에 혁명적기상이 나뉘어져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사업과 수도건설부대의 청년들 돌격대원들을 안고 10월의 대추진전에 자랑스럽게, 멋있게 뛰어넘어 대고조에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들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신각같이 떨쳐나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물길골짜기를 비롯한 어려운 건설대상들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전반적인 공사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1호발전소조조 조업에 대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 총공사업의 80%정도 완공을 돌파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조소속 새세대에 지어올리고, 남다른 열정을 발휘하여 건설사업에서 선진적기상을 높이고, 공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창조와 건설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청년발전소건설사업에 참가한 청년들 돌격대원들이 헌신의 불길속에서 새세대를 지어올리고, 남다른 열정을 발휘하여 건설사업에서 선진적기상을 높이고, 공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창조와 건설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매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회토호상간 설비, 자체수충정비를 조직하였다. 현지에서 달리는 평안남도, 함경북도, 량강도청년동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장조해나가고 하였다.

그들의 경쟁열의를 불붙이시켜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가고 하였다. 8, 28청년돌격대관리국은 수기동려단의 운전사들은 혁명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면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고있다.

황해남도려단, 성, 중앙기관대대를 비롯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4려단들과 대대들에서는 도로를 보수정리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물동을 제기일에 어김없이 수송할수 있게 하고있다.

수충정비가 시작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현지에서 도청년동맹위원회들의 기공수충회개 열렸다. 자강도청년동맹위원회회를 비롯한 각 도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는 발전소건설에 철저히 필요한 기공수충을 마련함으로써 1호발전소조조 조업에 대한 투쟁에 열매진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크게 고무하여주었다.

평안북도려단, 평안남도려단,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한 각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1호발전소조조 조업을 위한 취수담, 조압수조조와 압력관로설치, 육외변전소건설을 비롯한 대상명공사를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안주지구관광연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설과 공동구조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안주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5월 석탄생산성과를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다시한번 《안주속도》를 창조할 결의의 높이 석탄생산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석탄생산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에 연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석탄생산과 채굴장비,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신리, 연흥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가는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수

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5월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생산을 더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리탄광 2경 제1탄, 2경제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6월에 들어와서 석탄생산계획을 기어이 앞당겨 완수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릴 일념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연흥탄광 채탄중대에서는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동남나무를 비롯한 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힘쓰고있다. 2경 제1탄에서는 대추진기세를 이어 당장전 65톤까지 수백m의 굴진속도를 높여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해나가고있다. 1경 제1탄에서는 대추진기세를 이어 당장전 65톤까지 수백m의 굴진속도를 높여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해나가고있다.

신리, 화동, 통일탄광의 탄부들은 5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6월에 들어와서도 멀쩡히 기세로 계속형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립석탄광 《차광수충년돌격대》원들은 5월말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데 이어 당장전 65톤까지 수백m의 굴진속도를 높여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해나가고있다. 1경 제1탄에서는 대추진기세를 이어 당장전 65톤까지 수백m의 굴진속도를 높여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잘 전개해나가고 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연흥탄광의 일군들도 설비와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 주면서 탄부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지금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미세와 남조선피해적대당의 무모한 세력진도발책 등을 단호히 뒷받침하며 열의와 기상을 안고 석탄생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 혁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세우야 하겠습니까.》

각지 뜨락또르부속품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안주, 해주, 정주, 사리원, 금야뜨락또르부속품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10월의 대추진에 자랑찬 로적적성과로 빛날만한 마음으로 5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안주 뜨락또르부속품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농업성에서는 뜨락또르부속품생산을 높여 각지 농촌에서 농기계들의 이용률을 더욱 높이고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었다. 각지 뜨락또르부속품공장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만들어내 부속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안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신심드높이 분발해나선 이들은 내부에비를 동원하여 조과있게 리용하면서 기술혁신의 열을 힘있게 벌려 부속품의 질

을 더욱 높이고있다. 또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기공시, 각종 치차류 등 여러가지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창조하고있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이미 무려놓은 생산대과 은을 내도록 기술을 혁신하면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일군들은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각종 치차류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속품생산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뜨락또르부속품생산을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정주, 금야뜨락또르부속품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부속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일군들은 자체를 확보하는 한편 설비정비보수를 잘하여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노동자들은 기동성과 판리를 알뜰히 하고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부속품생산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총공적전이로 새 기준, 새 기록 창조



위대한 장군님 대거하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안고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혜산강철공장에서- 본사기자 정 철 역

인민소비품생산을 추동하는 힘있는 당조직정치사업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도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공동사업의 전투적요소를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온 선교련직공장의 당원들과 노동자들은 올해 상반기인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6월 10일 현재 공장적으로 년간계획완수자는 130여명에 달한다. 종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최고 실적이며 집단지적혁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일꾼들은 정치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업제 어디서나 정치사업을 능란하고 활발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집단적혁신으로 적극 떠밀어주어

선교련직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꾼들

하나로 열, 백을 움직인 혁신자축 호모입 초급당위원회 혁신자축호모입을 노동자들의 정신력을 비약히 폭발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보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한것은 시사적이다. 직조직장 재건공 최희옥, 1가공직장 재봉공 김현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일꾼들은 정치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업제 어디서나 정치사업을 능란하고 활발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연탄군버섯공장

야했다.

연탄군소재지를 돌아보노라면 산간경계와 어울려 한 폭의 아름다움 그림을 현상케 하는 아담한 건물들이 뿔뿔리 눈길을 끈다. 앞에 황주천의 맑은 물이 흐르고 뒤에는 병풍처럼 뻗어오른 산줄기와 조화를 이룬 이 건물들이 바로 연탄군버섯공장이다.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공상구내를 잘 꾸려진 공장일과 같고 경도식버섯재배장에 들어가보면 버섯향기가 넘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버섯도 많이 재배하여야 합니다."

제품마다 인민을 위한 마음이 비껴도록

평성고무줄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고무줄은 없어서는 안될 소비품으로서 고무줄 평성고무줄공장에 도 불멸의 명도자육을 남기셨다. 평성의 그 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설비들을 만반으로 돌려 여러가지 질 좋은 고무줄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밀어붙이려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쟁심이 안아온 기적

어랑은 하회복공장에서

어랑은 하회복공장에서 기적이 일고있다. 지난 시기 같은데 1년동안에 만들어낸 옷생산량을 몇달전부터는 달마다 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심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집단의 정진력을 분출시켜 세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해나가기 하고있는 이곳 당세포사업이 안아온 웅대한 기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꾼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잘짜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동원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탄전이 사랑하는 혁신자들

두 체우자!

탄전이 사랑하는 혁신자들 두 체우자! 바로 이런 선념과 의지, 높은 이상을 안고 펼쳐진 일꾼들과 당원들이 모범적 계획의 위력을 떨치며 짧은 기간에 올해의 모태기를 와닥 와닥 끝내고 관계가 진입하였던 것이다. 그때 나와 만난 장일군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선공시대의 《산울림》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뭉뚱은 울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어줬다. 이제 미곡리사람들만이라. 온 나라 농업부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이상을 높이 세우고 이상으로 화답하여나섰다. 당이 베푼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다. 뭉뚱은 울해에 최고수확년도 수확을 기여이 돌파하고 강성대국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바로 이것이 주공전선투원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울려나오는 심장의 화답이며. 이날 협동벌의 《산울림》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유엔무대는 결코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날조극》, 《모략극》을 용인하는 공간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 미 조선해태상에 발생한 피괴해군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립장을 내외에 공식 천명하였다. 더우기 우리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함선이 침몰되었다는 역적패당의 주장과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조사결과》라는것을 우리를 반대하여 꾸민 황당무계한 《날조극》, 《모략극》으로 라틴하였다.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에 동조하여 날조선의 정계, 사회적, 학계, 언론계에서도 객관적과 과학적 담보하였다는 《합동조사단》의 그 무는 《조사결과》를 놓고 날이 갈수록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어 미국에 의하여 함선이 침몰되었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기 나라 주권정체를 주시하고있는 중국은 물론 남조선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한 로씨야도 피괴함선의 함선이 우리의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물증을

알곡증산의 예비는 과학농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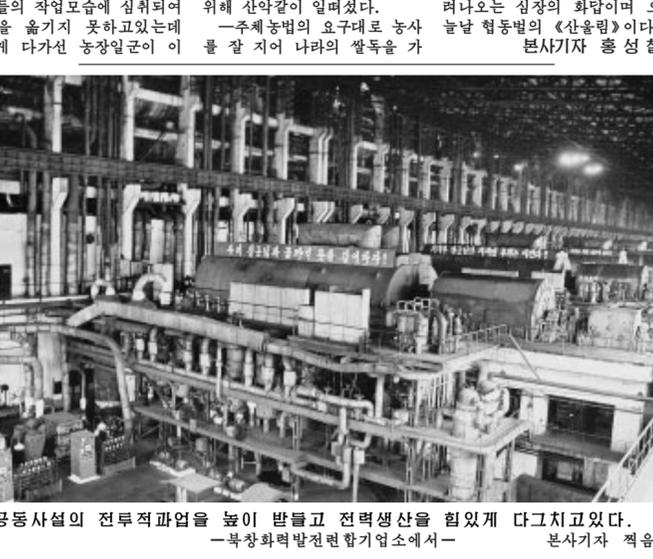
황주군 구포협동농장에서

을 조직하고 지난 시기의 농사정형을 깊이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농장실정에 맞는 품종을 배지하는것이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결정적요인이라하는것을 명심하고 농업은 과학연구기관과의 연계 밑에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택하여 씨뿌리기를 하였으며 새로운 벼모기르기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튼튼한 벼모를 키워냈다. 농장에서는 토양의 특성에 맞고 정교당 수확을 높일수 있게 하는 이랑소식제배방법을 받아들여 모내기를 하였다. 이 방법을 처음 받아들이는것만큼 농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부자기사업과 기술습득을 행하여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에게 그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주었다. 한편 여러대의 기계를 만들어 이랑갈이를 기술적요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경회국 《산울림》이 시대에 주는 여운은 참으로 크다. 하다면 뜻깊은 울해에 우리의 협동벌마다에서 새차례 울려 퍼지는 심장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기회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 사명으로 삼고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역적패당의

협동벌의 《산울림》

《선공시대의 《산울림》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뭉뚱은 울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어줬다. 이제 미곡리사람들만이라. 온 나라 농업부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이상을 높이 세우고 이상으로 화답하여나섰다. 당이 베푼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다. 뭉뚱은 울해에 최고수확년도 수확을 기여이 돌파하고 강성대국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바로 이것이 주공전선투원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울려나오는 심장의 화답이며. 이날 협동벌의 《산울림》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공동사설의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적음

반공화국대결을 노린 모략적인 날조극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주장

《천안》호침몰사건을 미국과 리명박적대결의 비열하고 추악한 모략극, 날조극으로 락인단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국선정정치연구회와 영국주재사상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합선침몰과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는 자명한 사실을 밝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합선침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계되어있다고 하는것은 조선에 대한 도적인 도발이며 미국과 남조선의 날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결렬단교권을 제기한것은 천백년 정당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결렬 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거절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중거물》들은 마치 박물판에서 주어진 물건과 같은것이다.》

《조선의 《조사결과》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나라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있다. 특히 《조선의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중거물》을 조선의 《천루실》을 강조하기 위해 꾸며낸 조작으로 보고있다.

조선의 잠수정이 《어뢰공격》을 하였다고 하는때 초계함(잠수정모형)을 탐지하지 못하였다는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방글라데시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천안》호침몰사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의도적인 모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시책들을 단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결렬단교권을 제기한것은 천백년 정당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결렬 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거절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중거물》들은 마치 박물판에서 주어진 물건과 같은것이다.》

《로씨야과학인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공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브는 신문 《모스콥스콰르》 기사를 회정에서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측의 《결론》은 남조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결렬단교권을 제기한것은 천백년 정당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결렬 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거절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중거물》들은 마치 박물판에서 주어진 물건과 같은것이다.》

《로씨야과학인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공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브는 신문 《모스콥스콰르》 기사를 회정에서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측의 《결론》은 남조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결렬단교권을 제기한것은 천백년 정당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결렬 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거절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중거물》들은 마치 박물판에서 주어진 물건과 같은것이다.》

《로씨야과학인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공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브는 신문 《모스콥스콰르》 기사를 회정에서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측의 《결론》은 남조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결렬단교권을 제기한것은 천백년 정당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결렬 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거절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중거물》들은 마치 박물판에서 주어진 물건과 같은것이다.》

《로씨야과학인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공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브는 신문 《모스콥스콰르》 기사를 회정에서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측의 《결론》은 남조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남조선당국은 예견대로 러무늬없이 날조된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분명 리명박 《정권》은 조선반도의 건강상태를 격화시키고는 정치적으로도 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하였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리념으로 볼 때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남조선당국이 조작한 날조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의로운 나라이며 이 나라를 반대하는 군사적모략행동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언제나 정기가 승리하는것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결백성이 확증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예견대로 러무늬없이 날조된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분명 리명박 《정권》은 조선반도의 건강상태를 격화시키고는 정치적으로도 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하였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리념으로 볼 때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남조선당국이 조작한 날조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의로운 나라이며 이 나라를 반대하는 군사적모략행동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언제나 정기가 승리하는것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결백성이 확증될것이다.

부강비영양인 사형수이주권

우리 나라를 방문한 라오스인혁명당대외단 단장인 분통 깃마니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참관자들마다에서 받은 소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체류기간 우리는 당창건사적관과 주재사상탑을 참관하였다.

나서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 당창건의 기초를 마련하셨다.

세상은 그이와 같은 결출한 정기가, 위대한 수령을 알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고있다.

나는 지난 시기 주재사상에 대해 많이 연구하였다.

에리오피 아단체 블레쥬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일에 즈음하여 에리오피아청년주재사상 연구위원회에서 블레쥬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새벽시간》을 발행하였다.

블레쥬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벽

시간은 달콤한 꿈의 시간이다. 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 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새벽시간은 이와 다르다.

그이의 새벽시간은 사회주의 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장을 펼쳐는 력사의 순간이기도 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전자도서관 수영관을 돌아보고 깊이 감동되었다. 전자도서관은 대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데 기여하고있다.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배우고있다.

이처럼 훌륭한 교육조건을 마련해준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관을 통하여 당과 국가가 대학의 교육사업발전에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교육과 학업에서 전력을 기울여 오기 위해 각자 노력하고있다.

조선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조선인민이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장정

나 이 제 리 아 신 분 의 글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2일부가 《김일성동지의 중국비공식방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종 두 나라, 두 당사자의 친선의 정과 동지적우의를 두터이 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친선의 생활력을 뚜렷이 파시한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2일부가 《김일성동지의 중국비공식방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종 두 나라, 두 당사자의 친선의 정과 동지적우의를 두터이 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친선의 생활력을 뚜렷이 파시한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2일부가 《김일성동지의 중국비공식방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종 두 나라, 두 당사자의 친선의 정과 동지적우의를 두터이 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친선의 생활력을 뚜렷이 파시한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2일부가 《김일성동지의 중국비공식방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종 두 나라, 두 당사자의 친선의 정과 동지적우의를 두터이 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친선의 생활력을 뚜렷이 파시한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

로씨야에서 사람들속에 애국주의와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고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이에 있어서 전승절 65돐은 그러한 사업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지난 5월 9일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열린 조국전쟁승리 65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로씨야연방 국기와 승리의 기발, 군기들을 든 기발총대와 붉은광공의 각종 열병총대들이 세운 위훈에 대한 긍지감과 존경심을 심어주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제 앞서 모스크바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 로씨야무력, 국부전쟁로병들의 제1차 전로대회, 6월 9일 이 나라 국회가 이에 대해 발표하였다.

로씨야에서 사람들속에 애국주의와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고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이에 있어서 전승절 65돐은 그러한 사업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지난 5월 9일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열린 조국전쟁승리 65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로씨야연방 국기와 승리의 기발, 군기들을 든 기발총대와 붉은광공의 각종 열병총대들이 세운 위훈에 대한 긍지감과 존경심을 심어주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제 앞서 모스크바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 로씨야무력, 국부전쟁로병들의 제1차 전로대회, 6월 9일 이 나라 국회가 이에 대해 발표하였다.

로씨야에서 사람들속에 애국주의와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고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이에 있어서 전승절 65돐은 그러한 사업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지난 5월 9일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열린 조국전쟁승리 65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로씨야연방 국기와 승리의 기발, 군기들을 든 기발총대와 붉은광공의 각종 열병총대들이 세운 위훈에 대한 긍지감과 존경심을 심어주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제 앞서 모스크바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 로씨야무력, 국부전쟁로병들의 제1차 전로대회, 6월 9일 이 나라 국회가 이에 대해 발표하였다.

로씨야에서 사람들속에 애국주의와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고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이에 있어서 전승절 65돐은 그러한 사업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지난 5월 9일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열린 조국전쟁승리 65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로씨야연방 국기와 승리의 기발, 군기들을 든 기발총대와 붉은광공의 각종 열병총대들이 세운 위훈에 대한 긍지감과 존경심을 심어주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제 앞서 모스크바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 로씨야무력, 국부전쟁로병들의 제1차 전로대회, 6월 9일 이 나라 국회가 이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스라엘의 야수적만행을 규탄

구바민권전진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을 징벌할것을 국제공동체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유엔안보리사회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만행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았고있으며 더우기 팔레스티나의 가지지대에 대한 봉쇄를 풀자는데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규정을 모면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데 대처하여 국제공동체가 보다 결정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만이스라엘공격행위지도자 세드 알리 카메니가 4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야수적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구바민권전진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을 징벌할것을 국제공동체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유엔안보리사회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만행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았고있으며 더우기 팔레스티나의 가지지대에 대한 봉쇄를 풀자는데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규정을 모면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데 대처하여 국제공동체가 보다 결정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만이스라엘공격행위지도자 세드 알리 카메니가 4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야수적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구바민권전진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을 징벌할것을 국제공동체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유엔안보리사회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만행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았고있으며 더우기 팔레스티나의 가지지대에 대한 봉쇄를 풀자는데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규정을 모면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데 대처하여 국제공동체가 보다 결정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만이스라엘공격행위지도자 세드 알리 카메니가 4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야수적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구바민권전진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을 징벌할것을 국제공동체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유엔안보리사회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만행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았고있으며 더우기 팔레스티나의 가지지대에 대한 봉쇄를 풀자는데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규정을 모면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데 대처하여 국제공동체가 보다 결정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만이스라엘공격행위지도자 세드 알리 카메니가 4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야수적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필리핀에서 대통령 선거

필리핀에서 베니노 씨메은 코야양로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지난 5월 10일에 전

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6월 9일 이 나라 국회가 이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간섭을 배격

니카라과의 마나파에서 3일 국제통화기금의 내정간섭을 반대배격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진행되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국가기관 종업원들의 로임인상을 위한 니카라과정부의 조치들을 두고 이라조지러공 비방장상한 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

일본에서 항의 집회

일본 야마구치현의 이와구니 시에서 얼마전 미항공모함함재기이전을 규탄배격하는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벌어졌다.

주일미군재편성의 일환으로 미항공모함함재기 59대가 가나가와현으로부터 이와구니에 있는 미군기지에 이동배치되는 것과 관련하여 진행된 항의 집회에는 약 4 000명의 각종 계층이 참가하였다.

미국에서 반이스라엘시위

미국에서 반이스라엘시위

세계상식

천문학발견에 기여한 과학자

2세기경 중국은 과학과 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하나가 바로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인 장형이었다. 미술가이고 작가이며 시인이기도 한 그는 당시 한나라의 관료로서 천문관찰, 점성술, 역술, 일기에보를 맡아보았다. 그는 황제의 어명에 따라 중국력서를 제결과 더 밀접히 일치되도록 하였다.

그는 지도에 처음으로 삼각측량을 도입하였고 월식을 연구하였으며 유익적인 천구의의 도움으로 2 500개의

기여한 과학자

기여한 과학자

《대포밥》이란 말의 유래

《대포밥》이란 말의 유래

《대포밥》이란 말의 유래

《대포밥》이란 말의 유래

과거정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역사적책임

일본이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끈질기게 회피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평화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과 토론의장에서는 일본의 과거범죄를 따지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일본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실시하는 기관을 설치할것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되었다.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 회에서도 일본의 전쟁범죄행위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일본의 과거정산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시였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것은 남을 위해서보다 자기자신을 위하여 필요하였기이다.》

일본이 과거죄악에 대하여 성근히 반성하고 정산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며 시대적 요구에도 맞는다.

현재 일본의 과거정산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인차 해결되어야 했다. 당시 국제사회가 일본과 파쇼이탈리아 등 전제국들에 대한 정벌조치를 취하고 배상을 적극적으로 등록한것은 전범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도이쉴란드는 전후 여러차례에 걸쳐 과거범죄행위에 대해 깊은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한데 이어 전쟁피해국들과 개별적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계별로 배상조치를 취하였으나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이쉴란트당국자들은 과거범죄를 결코 잊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려고 애쓰지도 않을것이라고

가 하면 그들이 정성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대해 《죄없을 때는 돈을 위해 목을 파는것》이라고 모독하는 망발 행위를 저지르고 회피하고있다.

잘못된 력사는 지워버려야 없고 지는것이 아니다. 력사적사실은 사실대로 남는 법이다.

일제의 침략행위, 살인과 강탈로 얼룩진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정당화해나가고있는 일본정권에 대해 세상 아시아인민들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의은 치욕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일본의 벼슬아치 력사관을 파헤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죄악에 대한 일본의 침묵과 태도는 일제가 지난날 아시아인민들을 반대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을 국부 미화시키고 정당화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며 아시아인민들을 독립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이었다는 망발, 태평양전쟁의 《덕분》으로 아시아인민들이 유럽의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하였다는 미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은 《좋은 일》도 하였다

세상에는 일본처럼 력사를 지독하게 잊어버리고있는 나라가 없다.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침묵과 태도는 그 배상을 끈질기게 회피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일본군 《위안부》범죄행위는 일제가 조선여성들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연행, 납치, 유괴하여 전쟁범죄로 끌고다니며 《황천》의 성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창조와 유체를 짓밟고 꽃다운 청춘을 하여 단계별로 배상조치를 취하였으나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이쉴란트당국자들은 과거범죄를 결코 잊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려고 애쓰지도 않을것이라고

회하기 위해 발광하는 한편 국내에 파쇼적인 전시체제를 세워나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공간을 리용하여 현대적 무장투쟁비를 갖춘 《자위대》무력에 《유엔평화유지군》의 병거지를 세워보낼 정의를 파견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세계평화유지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고있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흐름을 타서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고 획책하고있다.

제철의 칼을 휘둘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물들이고 그 후에 《히노마루》를 날려보자는것이 필사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본심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과거정산을 하지 않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제철야망을 품고있기때문이다.

지난날의 죄과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일본이 주변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평화의 길로 나가려 하는가 아니면 범죄적과거를 담보하려는가를 갈라볼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도 된다.

전범국이라는 수식스러운 딱지가 붙어있는 일본이 그 오명을 벗고 국제적신임을 얻으려면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고있는바에 대해 세계평화호인민들은 적의 오명조차 벗지 못하고있는 주체에 어찌를 넘겨놓아도 그 조소와 비난을 부끄러워한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조소와 맹대를 받고 있는것은 과거정산을 미루고있는데 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처럼 과거죄과를 성근히 사죄, 반성하고 배상을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시대의 규탄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겠다.

일본은 시대의 불행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과거범죄에 대한 자기의 역사적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리 현 도

회하기 위해 발광하는 한편 국내에 파쇼적인 전시체제를 세워나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공간을 리용하여 현대적 무장투쟁비를 갖춘 《자위대》무력에 《유엔평화유지군》의 병거지를 세워보낼 정의를 파견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세계평화유지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고있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흐름을 타서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고 획책하고있다.

제철의 칼을 휘둘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물들이고 그 후에 《히노마루》를 날려보자는것이 필사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본심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과거정산을 하지 않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제철야망을 품고있기때문이다.

지난날의 죄과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일본이 주변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평화의 길로 나가려 하는가 아니면 범죄적과거를 담보하려는가를 갈라볼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도 된다.

전범국이라는 수식스러운 딱지가 붙어있는 일본이 그 오명을 벗고 국제적신임을 얻으려면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고있는바에 대해 세계평화호인민들은 적의 오명조차 벗지 못하고있는 주체에 어찌를 넘겨놓아도 그 조소와 비난을 부끄러워한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조소와 맹대를 받고 있는것은 과거정산을 미루고있는데 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처럼 과거죄과를 성근히 사죄, 반성하고 배상을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시대의 규탄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겠다.

일본은 시대의 불행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과거범죄에 대한 자기의 역사적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천안》호침몰사건을 미국과 리명박적대결의 비열하고 추악한 모략극, 날조극으로 락인단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국선정정치연구회와 영국주재사상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합선침몰과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는 자명한 사실을 밝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합선침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계되어있다고 하는것은 조선에 대한 도적인 도발이며 미국과 남조선의 날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결렬단교권을 제기한것은 천백년 정당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결렬 단을 받아들이는것을 거절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중거물》들은 마치 박물판에서 주어진 물건과 같은것이다.》

《로씨야과학인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공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브는 신문 《모스콥스콰르》 기사를 회정에서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측의 《결론》은 남조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남조선당국은 예견대로 러무늬없이 날조된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분명 리명박 《정권》은 조선반도의 건강상태를 격화시키고는 정치적으로도 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하였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리념으로 볼 때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남조선당국이 조작한 날조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의로운 나라이며 이 나라를 반대하는 군사적모략행동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언제나 정기가 승리하는것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결백성이 확증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일에 즈음하여 에리오피아청년주재사상 연구위원회에서 블레쥬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새벽시간》을 발행하였다.

블레쥬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벽

시간은 달콤한 꿈의 시간이다. 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 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새벽시간은 이와 다르다.

그이의 새벽시간은 사회주의 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장을 펼쳐는 력사의 순간이기도 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전자도서관 수영관을 돌아보고 깊이 감동되었다. 전자도서관은 대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데 기여하고있다.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배우고있다.

이처럼 훌륭한 교육조건을 마련해준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관을 통하여 당과 국가가 대학의 교육사업발전에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교육과 학업에서 전력을 기울여 오기 위해 각자 노력하고있다.

조선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조선인민이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